

# “코로나 시대, 뭉쳐야 산다...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극복을”

산학연 협업 중요성 한목소리  
민관 합동 한국형 플랫폼으로  
연구개발 효율성 극대화해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은 물론 규제당국과 연구단체까지 하나의 목표로 뭉치는 협업의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 56개 제약·바이오기업은 사상 처음으로 공동 출자를 결의했고,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통한 국민 건강 주권 확보 의지를 다지고 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강연자들은 코로나 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는 민관은 물론 산학연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0개국 중 신약 개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김재욱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제제과장이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발단계에서의 혁신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낮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과 분업·협업의 활성화가 필수 요소다. 유럽은 현재 기업과 기관, 병원 및 연구단체들이 각각의 사업적 장점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개발(R&D)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허경화 KIMCo 대표는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 효율성을 국가별 비교하면 한국은 혁신 신약개발 연구단체보다 개발단계의 생산성이 낮다”며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은 민관협업 한국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R&D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산학연이 연계한 오픈이노베이션도 중요한 요소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소 대표는 “정부 차원 국제 협력과 공조를 통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분위기 확산 등 글로벌 리더십 필요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19는 물론 신종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비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는 사후적인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 주권을 확보하라

국내 기업과 규제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리퓨어생명과학은 이미 검증된 중화항체 서열을 활용해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항체 기능 검증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유정운 리퓨어생명과학 연구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등 기존 형태

의 단백질 뿐 아니라 또 다른 4개의 구조 단백질들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연구개발 한계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다른 감염성 질환 극복하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K-치료제·백신 신속심사 추진반을 운영하고, 개발단계부터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자문과 신속심사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심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도 나섰다.

김재욱 식약처 백신검정과장은 “코로나19 재유행 및 감염병 대유행 대비 위기대응 치료제, 백신 등 신속 인허가를 위한 규제 유연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해외에서 개발 중인 백신과 치료제는 수입 과정에서 꼼꼼하게 안전성과 효능을 검토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포럼 현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 “K-바이오, 미지의 영역 도전... 성장 계기”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코로나19는 K-바이오 성장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는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결과는 참혹했다”면서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라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과거 바이러스 팬데믹의 역사를 예로 들었다. 1300년대 흑사병은 유라시아 지역을 휩쓸며 수억명의 사망자를 냈고, 15세기 중반 유럽인들이 멕시코지역을 정복할 당시, 아즈텍 왕국에 퍼트린 천연두, 홍역, 독감 등 각종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의 90%의 목숨을 앗아갔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홀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 포럼’에 참석한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그는 이러한 바이러스의 대공습은 어떤 이슈보다도 인류의 삶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인 방역 원칙을 준수하며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다”며 “실제 K-방역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를 통해 국내 제약 바

이오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자세로 제약바이오 관계자들은 어려울수록 ‘백투더베이스’로 돌아가자”면서 “이번 포럼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는 K-바이오의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주최 이유를 전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5차 산업혁명 출발점은 ‘제약·바이오’”

축사 조동성  
산업정책 연구원장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산업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활용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조동성 산업정책 연구원장(사진)이 지난 21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2020 제약&바이오포럼’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조 이사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날 웨비나로 진행된 포럼에 맞춰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그는 “메트로신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라는 제목의 포럼을 진행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 백신을 만들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 우리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며 포럼의 성과에 관심을 표했다.

조 이사장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면으로 옮겨가는 이때, 제약이 그 길에 합세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제5의 산업혁명, 다시 말해서 AI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제약바이오’”라고 강조했다.

/원은미 기자